

〈일반논문〉

1793년 생시르의 폐교: 구체제의 청산*

강 미 숙 **

〈목차〉

- I. 머리말
- II. 생시르와 프랑스혁명
- III. 1793년 생시르의 폐교
- IV. 맺음말

[국문초록]

1789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절대왕정기 왕의 지원 아래 귀족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생시르는 혁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때문에 생시르는 1789년 8월 4일 밤 제헌의회의 봉건제 폐지 선언을 신호탄으로 학교 수입의 몰수를 포함해 점차 그 권리가 축소되다가 결국 1793년 폐교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 혁명기 제헌의회부터 국민공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혁명정부가 생시르를 폐교하는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혁명정부가 발표했던 교육 관련 법령들을 면밀히 분석해 생시르가 어떻게 폐교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생시르가 혁명정부에 의해 청산되어야 할 구체제의 유산이었으며 그러한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6327).

**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점에서 생시르는 절대왕권의 상징이었던 루이 14세의 통치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다.

□ 주제어

생시르, 루이 14세, 프랑스혁명, 구체제, 절대왕정, 여성교육

I. 머리말

1786년은 생루이 왕립학교(la maison royale de Saint Louis à Saint-Cyr, 이하 생시르로 칭함)¹⁾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100주년 기념행사답게 축제는 일주일 동안 벌어졌고, 루이 16세의 여동생인 마담 엘리자베스(Madame Élisabeth)를 비롯하여 파리 대주교, 샤르트르 주교, 국무참사회(Conseil d'Etat)의 일원들, 생시르의 대외자문위원회(conseil du dehors) 이사들을 포함해 당시 종교계 및 정계의 고위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처음 3일은 주로 종교적 의식이 행해졌는데, 궁정 사제 랑팡(Lanfant)과 명망있는 생라자르(Saint Lazare) 수도회 신부들의 연설이 뒤따랐다. 당시 생라자르 수도회 신부인 프랑수아(M. François)는 생시르 설립자

1) 생시르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Milhet, Jean-Joseph, *Saint-cyr, trois siècles d'histoire du poète Jean Racine au sculpteur César*, Paris: Editions Christian, 1998; Milhet, Jean-Joseph, "Saint-Cyr, haut lieu voué à l'éducation", Chantal Grell et Arnaud Ramière de Fortanier, éd., *L'Éducation des jeunes filles nobles en Europe XVIIe-XVIIIe siècles*, Paris: Presses de l'Université Paris-Sorbonne, 2004.

인 땡트농 부인(Madame de Maintenon: 1635-1718)²⁾에게 경의를 표하는 연설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연설에서 프랑스대혁명의 ‘어법’이 나타나고 있었다.³⁾ 예컨대 생루이의 ‘부인들’(Dames de Saint Louis)은 ‘여교사들’(institutrices)로, 생시르의 ‘아가씨들’(demoiselles)은 ‘여학생들’(élèves)

2) 어렸을 적 이름이 프랑수아즈 도비네(Françoise d'Aubigné)인 땡트농 부인은 그 삶의 여정이 대단히 드라마틱하다. 그녀는 지방의 몰락한 귀족 가문출신으로 그녀의 조부는 위그노 작가이자 앙리 4세의 친구이기도 했던 아그리파 도비네(Agrippa d'Aubigné)이다. 그러나 부친인 콩스탕 도비네(Constant d'Aubigné)는 화폐위조자, 파산자, 배교자, 반역자가 되어 여러 감옥을 전전했고 땡트농 부인의 집안은 몰락하게 된다. 그녀는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던 한 감옥 안에서 태어나 유년기의 암울한 삶을 전전하다 25살 연상의 ‘앞은뺨이 시인’인 폴 스카롱(Paul Scarron)과의 첫 번째 결혼을 거쳐 1683년 루이 14세의 비밀스런 ‘두 번째’ 왕비가 되기까지 그 삶은 전형적인 신분상승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한편의 역사소설과도 같다. 땡트농 부인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참고할 수 있다. Daniélou, Madeleine, *Madame de Maintenon, éducatrice*, Paris: Bloud & Gay, 1946; Le Nabour, Eric, *La Marquise de Maintenon. l'épouse secrète de Louis XIV*, Pygmalion, 2007; Mongenot, Christine et Plagnol-Diéval, Marie-Emmanuelle, dir., *Madame de Maintenon Une femme de Lettr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12. 특히 정치분야에서의 땡트농 부인의 역할은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일생 및 역사를 고려할 때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낭트칙령 폐지 및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정계 총신들에 대한 막후 영향력 등 땡트농 부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 있다. Pascal, César, *La révocation de l'édit de Nantes et Mme de Maintenon: sa vie, son caractère, son influence*, Paris: E. Dentu, 1885; Baudrillart, Alfred, “Mme. de Maintenon, Son Role Politique Pendant Les Dernieres Années Du Règne de Louis XIV, 1700-1715”, *Revue des Questions Historiques*, 47, 1890; Rosset, Alfred, *Madame de Maintenon et la Revocation de l'Edit de Nantes: essai historique*, Audincourt: Impr. C. Jacot, 1897; Sturgill, Claude, *Marshal Villars and the War of the Spanish Succession*, Kentucky: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65; Mills, Bonnie C., “Le role de Madame de Maintenon dans la revocation de l'Edit de Nantes”, M.A., Millersville State College, 1970.

3) 이 연설은 이듬해인 1787년에 출판되었다(*Eloge de Mme. de Maintenon: discours par M. François, prêtre de la Mission*, Paris, 1787). Barnard, H. C., *Madame de Maintenon and Saint-Cyr*, London: A. & C. Black, LTD, 1934, p. 117.

로, 생시르는 ‘귀족을 위한 국립 여성학교’(école nationale du sexe pour la noblesse)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1789년 혁명으로 인해 생시르가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것이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함락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1786년 정계 및 종교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10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던 생시르의 운명에 치명타를 가했고, 그 절정은 설립자인 땡트농 부인의 유해 모독사건이었다. 혁명이 한창 절정을 향해가고 있던 1793년 3월 16일, 국민공회는 생시르 폐교령을 내림과 동시에 생시르의 가구 및 기기들을 매각하였고 학교 부속 예배당의 조각품들 역시 파괴하거나 분리하여 경매에 부쳐버렸다. 그리고 방치되었던 학교 건물은 1794년 군 병원으로 개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부속 예배당의 성가대 중앙부에서 석고와 돌 파편들로 숨겨진 검은색 뚜껑의 대리석 무덤이 발견되었다.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을 판독한 결과 그것이 생시르 설립자인 땡트농 부인의 무덤임을 확인한 인부들은 고향과 욕설을 퍼부으며 곡괭이로 무덤을 깨뜨렸고 땡트농 부인의 유해는 옷이 벗겨지고 손발이 훼손되는 등 조롱과 모욕이 가해졌다. 그리고 나서 인부들은 유해의 나머지 부분을 안뜰로 끌고 나가 불태우려 하였는데, 다행히 그곳을 담당하던 한 젊은 장교의 기지로 땡트농 부인의 유해는 정원의 가장 후미진 곳에 안장될 수 있었다. 땡트농 부인의 유해는 7년 동안 그렇게 묻혀 있다 1800년 군 병원이 프리타네 프랑세(Prytanée français)라는 이름의 소년기숙학교로 바뀌었을 때 발굴되어 살아 생전 그녀가 머물렀던 거처 앞에 다시 묻힐 수 있었다.⁴⁾

일종의 ‘부관참시’라고도 할 만한 매우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시르는 혁명 세력에 의해 청산되어야 할 ‘구체

4) Cruttwell, Maud, *Madame de Maintenon*, New York: Dutton, 1930, pp. 398-399.

제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혹 혁명기에 반드시 '깨부숴야' 할 무언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주지하듯이, 서양의 역사에서 프랑스 대혁명 앞에는 절대군주정 체제가 존재한다. 그런데 '절대주의'(absolutisme)라는 말은 프랑스혁명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프랑스혁명의 주체들이 그 대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일 가능성이 높다.⁵⁾ 그렇다면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 세력에게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청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구체제로서의 절대군주정이었을 것이다.

절대군주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루이 14세 치하의 절대군주정과 여성교육의 함수관계를 보여주기도 하는 생시르는, 루이 14세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 아래 땡트농 부인이 설립한 것으로 '가난한' 귀족가문출신 소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였다. 특히 생시르의 역사적 함의는, 17세기 후반 가톨릭이라는 종교권력과 루이 14세의 절대군주정이라는 정치권력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었다.⁶⁾ 그러한 점에서 생시르는 프랑스 절대왕정시대 정치와 교육의 함수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1793년 혁명 과정에서 일어난 설립자 유해모독사건과 생시르의 폐교는 단순히 혁명 중 있었던 하나의 충격적인 해프닝이 아닌 혁명 정부에 의한 '구체제 청산'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오랫동안 생시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설립자인 땡트농 부인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생시르에 대해 최초의 포괄적인 저술을 시도한 학자는 19세기의 테오필 라발레(Théophile Lavallée)였는데, 그는 『생시르 왕립학교의 역사, 1686-1793』(*Histoire de la maison royale de Saint-Cyr, 1686-1793*)(1853), 『땡트농 부인과 생시르 왕립학교』(*Madame de Maintenon et la Maison Royale de Saint-Cyr*)

5) 김응중, 「절대왕정의 명암」, 『서양의 역사에는 초야권이 없다』, 푸른 역사, 2005, 105쪽.

6) Roche, Daniel, *Les Républicains des lettres: Gens de culture et lumières au XVIIIe siècle*, Paris: Fayard, 1988, p. 351.

(1862)에서 땡트농 부인의 편지 및 교육관련 저술들을 설명했다. 생시르에 대한 라발레의 이러한 연구서들은, 땡트농 부인의 시대에서부터 그 당시 까지 나온 관련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저술한 것으로서 20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설립자인 땡트농 부인 개인의 모습에 지나칠 정도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니 절대왕정기 여성교육기관으로서의 생시르가 가진 정치적 함의를 비롯해 혁명기에 생시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완전히 폐교되었는지를 고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생시르에 대한 본격적이면서도 의미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20세기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20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와서는 17, 18세기 프랑스 교육사 속에서 땡트농 부인과 생시르를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대부분 회고록이나 오래된 2차 자료들에 의존한 나머지 생시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20세기의 관점은 여전히 전통적인 시각을 답습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땡트농 부인에 관한 전기 내지 역사소설, 또는 주석 달린 자료집 형태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와 발표된 두 편의 연구⁷⁾는 생시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생시르의 사회적, 종교적, 교육적 배경, 특히 가톨릭 종교개혁의 영향과 생시르의 커리큘럼을 연구해 그 철학과 구조를 분석한 캐런 테일러의 연구는 여성교육에 대한 국가의 시각 및 여성에 대해 교육을 허용했던 당시의 지적, 사회적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7) Taylor, Karen L., "Cher espoir de la nation sainte: the maison royale de Saint Louis at Saint-Cyr", Ph. D., Sidwell Friends School/Georgetown University, 2000; Duvergé, Christine, "Entre theorie et pratique: Madame de Maintenon et la cité des Demoiselles de Saint-Cyr(1685-1719)", Ph.D., Univ. of Arizona, 2003.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생시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생시르의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루이 14세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에 대한 고찰속에 생시르에 입학한 여학생들의 가문을 분석하여 생시르가 단순한 여성교육기관이 아닌 루이 14세 시대 절대왕권의 귀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고, 생시르의 이러한 교육목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중 하나로서 연극프로그램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⁸⁾ 하지만 이들 연구 역시 정치와 교육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 여성교육의 사례인 생시르의 특수성을 부각하지는 못하였고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주목되어야 할 프랑스혁명기 생시르의 폐교에 대해서는 더 더욱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사실 프랑스 대혁명은 교육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다. 공교육을 자유와 평등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한 혁명 세력은 1791년 ‘공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초로 만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교육의 전체적인 밑그림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안을 제시했다. 때문에 1789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절대왕정기 ‘가난한’ 귀족가문 출신 소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생시르는 혁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리하여 생시르는 1789년 8월 4일 밤 제헌의회의 봉건제 폐지 선언을 신호탄으로 학교 수입의 몰수를 포함해 점차 그 권리가 축소되다가 결국 1793년 국민공회에 의해 폐교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혁명기 제헌의회부터 국민공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혁명정부에 의한 생시르 폐교 과정을 고찰

8) 강미숙, 「생-시르(Saint-Cyr)기숙학교 설립자, 땡트농 부인(Madame de Maintenon)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서양사학연구』 13, 2005; 강미숙, 「땡트농 부인의 생시르 기숙학교와 17세기 프랑스의 여성교육」,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강미숙, 「생시르 기숙학교를 통해 본 루이 14세의 귀족정책」, 『서양사학연구』 16, 2007; 강미숙, 「루이 14시대 여성교육: 생시르 기숙학교의 사례」, 『역사와 문화』 16, 2008; 강미숙, 「그리스 비극에서 성서극으로: 17세기 후반 생시르 기숙학교 연극의 변화」, 『서양사학연구』 40, 2016.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혁명정부가 발표했던 교육 관련 법령들을 면밀히 분석해 당시 혁명정부가 생시르를 어떻게 폐교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생시르가 혁명정부에 의해 청산되어야 할 구체제의 유산이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생시르는 절대왕권으로 상징되고 있었던 루이 14세의 통치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II. 생시르와 프랑스혁명

주지하듯이, 절대군주정은 서유럽사회가 중세의 봉건적 분권국가에서 근대적 국민국가로 이행하던 16-18세기에 탄생한 과도기적인 정치 형태이다. 루이 14세(Louis XIV, 1638-1715)는 이러한 절대군주정의 모델이자 전형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는 절대군주정의 형성과정에서 귀족 세력을 제압하여 왕권강화를 이룩하고 전쟁과 외교에서는 유럽을 제패했으며 균형과 일치, 조화를 이상으로 하는 고전주의 문화를 꽃피워 낸 강력한 군주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는 살아생전에 ‘대왕’(le Grand)의 칭호를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17세기 전체가 루이 14세 시대와 동일시되며 ‘위대한 세기’로 불린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사에서 17세기는 영광과 질서의 세기가 아닌 고난과 역경의 시기였다. 17세기 전반기에 프랑스는 무수히 많은 반란에 시달렸고 후반부에는 전쟁에 집착한 나머지 루이 14세가 벌인 끝없는 전쟁과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짓눌렸다. 요컨대, 루이 14세의 절대군주정은 실제로 불완전하고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것으로서, 군주가 사회의 모든 계층 위에 군림하며 유아독존식으로 국가를 통치했던 정치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다양하고도

치밀한 정치적 전략을 통해 강변된 군주권이라 할 수 있다.⁹⁾

이러한 전략은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 1661년 이후부터 본격화된다. 특히 17세기 후반 루이 14세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사회에 대한 지배이데올로기를 구축함으로써 질서와 복종을 토대로 한 절대왕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에 있었다. 1686년 생시르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과정의 일부였다. 즉, 루이 14세 통치 후반기인 1686년 여름, 그 이름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통치하에서 순교한 젊은 시르(Cir) 또는 시리크(Cirique)'라는 기원을 갖고 있는 생시르에 '가난한' 귀족가문 출신 소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생루이 왕립학교, 일명 생시르가 설립되었다. 생시르는 17세기 후반 가톨릭 종교개혁과 루이 14세의 귀족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의 내면화에 입각한 경건하고 순종적인 여성의 주조', 즉 경건하면서도 가부장제 질서에 순응적인 여성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신민들로 하여금 가부장적 권위의 수용과 실천, 절대군주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을 교육목표로 절대군주 루이 14세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 아래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루이 14세의 치밀한 정치적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 국가의 국민을 통치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조하자면 모든 개개인의 첫 교사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점에서 루이 14세의 절대군주정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여성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의 치밀한 정치적 전략 아래 설립되는 것이니 만큼 학교 건축은 당시 프랑스 최고 건축가라 할 망사르(Jules Hardouin-Mansart)가 맡았고 건축비만 하더라도 베르사유 궁전 건축비의 75분의 1인 107만 리브르에 달했다.¹⁰⁾ 절대군주, 루이 14세 통치하의 여성교

9) 이영림, 『루이 14세는 없다』, 푸른역사, 2010, 13-15쪽.

10) Milhet, Jean-Joseph, "Saint-Cyr, haut lieu voué à l'éducation", p. 100.

육기관으로서 1793년까지 107년 동안 이어질 생시르의 당당한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107년에 걸친 생시르의 역사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분류될 수 있다.¹¹⁾ 첫 번째 시기는 일명 ‘세속적인’ 시기(1686-1689)로 이 시기 생시르는 한 세기 전 예수회가 하나의 교육수단으로서 라틴어 혹은 프랑스어로 된 시극을 도입해 장려했던 것처럼, 학생들로 하여금 연극, 콘서트, 전례의식 등을 공연케 함으로써 일종의 ‘문화활동’을 통해 교육을 시도했던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1689년 1월 26일 생시르에서 라신(Jean Racine: 1639-1699)의 <에스테르>(Esther)를 무대에 올린 것은 유럽 궁정들의 환호를 받았던 예술적 승리였다.¹²⁾ 그러나 곧 맵트농 부인은 세련된 문화에 대한 강조가 교육적 실수였음을 확신했다. 여행 연습과 공연은 수업에 사용되는 시간을 심각하게 축소시켰던 것이었다. 또한 자유사상가들의 아침은 학생들에게 자만심과 부러움의 악덕을 품도록 했다. 따라서 이 시기 말에 맵트농 부인은 도덕적 편성을 강조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개정했다. 그녀는 학내에서 부도덕한 문학을 추방했고, 세속적인 살롱정신에 너무 물들었다 하여 최초의 교장인 브리농 부인(Madame de Brinon)을 해임했다.

두 번째 시기는 ‘신비주의적인’ 시기(1690-1697)로 이 시기 생시르는 외견상 세속교육기관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수녀원으로 변형되는 가운데 정적주의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기도 한다. 즉, 서원을 하지 않고 세속의 소녀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종교공동체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

11) John J. Conley, S. J., ed. & trans., *Dialogues and Addresses: The Other Voice in Early Modern Europe by Madame de Mainten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p. 7-9.

12) 이에 대해서는 강미숙, 「그리스 비극에서 성서극으로: 17세기 후반 생시르 기숙학교 연극의 변화」, 참조.

적인 시기' 생시르는 절대군주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여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세속교육기관임을 강조해 왔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라신의 작품을 연극으로 공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여파로 학생들이 지나치게 세속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우려한 종교계 인사들로부터 압력을 받아 1692년 생시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단 소속의 수도회로 변형되었다. 이를 생시르 역사에서는 '1692년의 개혁'이라 부른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 생시르는 정적주의 운동에 매료되어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정적주의(Quiétisme)는 외적 활동을 배제하고 침묵과 명상을 통해 신과의 직접적인 영적 결합을 장려했던 가톨릭 교회내의 한 분파로¹³⁾ 프랑스 정적주의 운동의 기수는 기욤 부인(Madame Guyon)¹⁴⁾이었다. 기욤 부인을 생시르에 소개한 이는 그녀의 책들에 매혹당한 페늘롱(François de Salignac

13) Taylor, Karen L., "Cher espoir de la nation sainte: the maison royale de Saint Louis at Saint-Cyr", p. 59.

14) 잔느 마리 부비에 드 라 모트 기욤(Jeanne-Marie Bouvier de la Motte-Guyon: 1648-1717)은 17세기의 마지막 20여년 동안 프랑스 귀족들사이에 가장 '평온하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급시켰다. 그녀의 정적주의는 기도시 신에게 무조건적으로 맡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상상적이고 지적인 명상에 의지하는 것을 비판했다. 1685년 출판된 그녀의 『간결한 기도법』(*Le moyen court de faire l'oraison*)은 맵트농 부인을 포함한 베르사유의 정신들 사이에 그녀의 기도법을 퍼뜨렸다. 모든 신비주의 운동을 잠재적인 반역으로 의심한 루이 14세는 1688년 기욤 부인을 체포했지만 맵트농 부인의 증재로 그녀는 석방되었다. 1690년대 초반에 그 영향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기욤 부인은 자신의 이론이 1694년에 교회위원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1695년에서 1703년까지 수감되어 있어야만 했다. 석방된 이후부터 1717년 사망할 때까지 그녀는 공개적인 모든 신학적 설명을 삼가야만 했다. 기욤 부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참고할 수 있다. Mallet-Joris, Françoise, *Jeanne Guyon*, Paris: Flammarion, 1978; James, Nancy C., *Pure Love of Madame Guy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7; James, Nancy C. and Voros, Sharon D., *Bastille Witnes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11; James, Nancy C., *The Soul, Lover of Go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14.

de la Mothe Fénelon)이었다.¹⁵⁾ 기욤 부인은 신의 섭리에 무조건 맡긴다는 정적주의 운동의 교리를 생시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가르쳤다. 그녀는 자신의 단순한 명상법으로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그것은 통성기도 및 상상력의 사용, 추론적인 묵상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처음, 그 운동의 엄격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땡트농 부인은 그러나 서서히 그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 특히 극단적인 소극성에 대한 강조는 도덕적인 덕의 획득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영적인 환상이 유행했다. 모세의 십계를 겨우 이해했던 학생들은 신비스러운 결혼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자랑하기도 했다. 정적주의가 지닌 효과에 놀란 땡트농 부인은, 1694년 정적주의에 대한 교회의 비난, 1695년 기욤 부인의 체포, 그 운동에 공감한 교사단의 해임, 생시르에서의 1696년 보쉬에의 반(反) 정적주의 강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엄격한 조치들을 보며 생시르에서 정적주의 운동이 지니고 있었던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정상화’ 시기(1698-1793)에 이르러 생시르는 혁명 정부에 의해 폐교되기 전까지 유지하게 될 윤곽을 형성했다. 초기의 과도한 예술 지상주의 및 신비주의로 혼란을 겪었던 땡트농 부인은 기본적으로 경건한 종교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가난한 지방귀족의 아내가 될 운명인 대다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데 보다 더 큰 강조점을 두었고 이제 가정 경제와 자수가 초기에 강조되었던 회화, 노래하기, 춤추기보다 중요해졌다.

이처럼 107년의 역사 동안 세 단계를 거쳐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진 생시르의 변함없는 정체성은 비록 ‘가난한’이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절대군주정의 치밀한 정치적 전략 아래 절대군주정이 추구

15) 페늘롱과 페늘롱이 생시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강미숙, 「페늘롱과 귀족제적 질서의 옹호 - 『소녀교육론』을 중심으로 -」, 『서양사학연구』 21, 2009, 95-116쪽 참조.

하는 이데올로기를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주입시키기 위해 귀족가문 여성들을 교육해 온 종교기관이라는 점이였다. 생시르의 이미지와 결부된 ‘절대군주정’, ‘귀족’, ‘종교기관’, 이 모두는 1789년 시작된 혁명과 양립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혁명은 프랑스의 국내 정치 뿐만이 아니라 ‘구체제’를 구성했던 모든 것들, 즉 봉건적인 잔재와 절대군주정의 특권들을 철폐하는 가운데 교회를 폐쇄하고 그곳에 몸담고 있던 성직자들에게도 공무원이 될 것을 강요하였다.¹⁶⁾ 그야말로 1789년에 프랑스인들은 전대미문의 혁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혁명은, 절대왕권을 제한하거나 개혁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치 영역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은 정치, 사회, 도덕적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동시에 인민 전체를 변화시키려는 혁명이었고 당연히 모든 과거와 전통, 즉 구체제를 일소하고 새로운 사회와 인간을 창출하려 하였다. 특히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혁명가들은 교육의 무한한 힘과 새로운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신봉했다. 교육에 의해 구체제의 편견과 미신을 타파하고 인민 전체를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래서 혁명과 함께 많은 교육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특히 입법의회와 국민공회는 공교육 위원회(Comité d'instruction publique)를 설치하여 교육안들을 연구하고 법안으로 제출함으로써 공교육을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대혁명은 교육사에서도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공교육을 자유와 평등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한 혁명 세력은 1791년 공교육 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초로 만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교육의 전체적인 밑그림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안을 제시했다.¹⁷⁾

16) 정동준, 『프랑스 대혁명기의 공교육 계획』, 국학자료원, 2003, 9쪽.

17) 송기형, 「프랑스혁명기 공공교육위원회의 교육안」, 한국프랑스사학회, 『교육과 정치로 본 프랑스사』, 서해문집, 2014, 93-94쪽.

따라서 1789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경건하고 순종적인 ‘현모양처’의 양성을 통해 신민들로 하여금 가부장적 권위를 수용하고 실천해 궁극적으로는 절대군주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지도록 ‘귀족’여성들을 교육해 온 생시르는 혁명의 적으로 비쳐졌다. 예컨대 ‘대공포’의 시기인 1789년 7월, 생시르는 그 이웃들에 대한 지난 100여 년간의 자선행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해 모아온 막대한 재산으로 인하여 부러움과 더불어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혁명이 가져온 무절제한 상황속에 농민들은 생시르 안마당으로 침입해 나무를 잘랐고 새들을 죽였다. 이들과 관리인들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샤스텔(Chastel)이라는 관리인이 살해당하기도 했다. 생시르의 무장한 주민들은 이제 ‘국민방위대’가 되었고, 그동안 봉건적인 전통하에 유지되어 온 생시르에 대해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혁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생시르의 수녀들[여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생시르내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었다. 마침내 10월 6일 베르사이유 궁전을 침입한 파리 민중들과 함께 생시르에도 혁명의 기운이 엄습했다.¹⁸⁾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내던져진 생시르의 이러한 운명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루이 16세의 여동생이었던 마담 엘리자베스일 것이다. 그녀는 일찍이 생시르에서 교육을 받았던 프랑스의 공주로서 생시르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왕실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인물이다. 1789년 7월 14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생시르와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다. 군중들이 왕과 왕실의 일원들을 파리로 끌고 갔을 때 그녀도 함께 끌려갔다. 그 후 그녀는 감시를 받았고, 자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생시르를 노출시키게 될까봐 생시르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도저히 생시르에 갈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인들’[여교사들]

18) Barnard, H. C., *Madame de Maintenon and Saint-Cyr*, p. 118.

에게 적대적이어서 내가 가면 그 다음날 내가 반혁명을 일으켰다고 말하면서 부인들을 공격할 것이다.¹⁹⁾

그러나 그녀는 10월 25일 간신히 생시르에 도착해 얼마간 머물렀고 이후 12월 19일에도 또 한번 생시르를 방문해 여교사들과 학생들을 만났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생시르를 방문한 것은 생시르가 폐교되기 약 1년 전인 1792년 3월 8일로 당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이미 직감한 듯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친구들과 이별했다. 이후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낸 그녀는 1794년 5월 10일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²⁰⁾

III. 1793년 생시르의 폐교

생시르에 엄습한 혁명의 진행과정은 생시르의 폐교과정과 대체로 일치하는데, 혁명이 생시르에 미친 첫 번째 영향은 아마도 '민주화'일 것이다. 1790년 3월 26일의 법령은 생시르에 입학할 때 귀족 태생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던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 법은 생시르뿐만 아니라 귀족의 증명에 입학 조건이었던 왕립군사학교(Ecole royale militaire)와 그 밖의 다른 왕립교육기관(maisons royales d'éducatio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당시 국새상서 샹피옹 드 시세(Champion de Cicé)는 “앞으로 국왕은 육군과 해군의 장교 자녀가 출생의 구분 없이 입학할 수 있기를 원합니

19) *Eloge historique de Mme. Elisabeth de France, suivi de plusieurs Lettres de cette Princesse par Antoine-François-Claude Ferrand*, Paris: impr. de A. Le Clère, 1861, p. 175.

20) *Ibid.*, p. 179.

다” 라고 생시르의 교장에게 설명하면서, 이 법령에 대한 왕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담, 현 상황을 반영하여 왕은 손수 두 부를 동봉하는 이 법령을 결정했습니다. 귀하의 기관처럼 존경받는 시설의 이익은 폐하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 법령의 초안은 그들을 배려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²¹⁾

이때부터 생시르는 태생에 구분없이 육군 장교나 해군 장교의 딸들에게도 개방되었다. 또한 생시르는 국립교육기관(maison nationale d'éducation)이 되었고 '부인들'(dames)은 '여교사들'(institutrices)이 되었으며 '아가씨들'(demoiselles)은 '여학생들'(élèves)이 되었다. 1786년 설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생라자르 수도회 신부가 한 말들이 이루어진 것이다.²²⁾

그러나 혁명은 생시르의 수입의 일부를 몰수함으로써 타격을 가하기도 했다. 즉, 1789년 제헌의회는 여름 내내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에 대한 대응으로 8월 4일 밤 봉건제 폐지를 천명했다. 봉건적 전통 하에 유지되어 온 생시르도 수입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 예컨대 1789년 생시르의 총 수입은 약 442,245 리브르로 추산된다. 그러나 8월 4일 밤 봉건제 폐지의 결과 1790년 생시르의 수입은 영주권의 폐지와 공채 연금 지급 중단으로 10만 리브르 이상이 사라졌다.²³⁾ 따라서 1790년 말부터는 임대 미납금과 빚을 회수하고 대출을 하거나, 철저히 절약해서 생시르를 유지했다.²⁴⁾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토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

21) Milhet, Jean-Joseph, *Saint-cyr, trois siècles d'histoire du poète Jean Racine au sculpteur César*, p. 155.

22) Barnard, H. C., *Madame de Maintenon and Saint-Cyr*, p. 119.

23) Milhet, Jean-Joseph, *Saint-cyr, trois siècles d'histoire du poète Jean Racine au sculpteur César*, p. 156.

24) Noailles, Duc de, *Histoire de la Maison royale de Saint-Louis établie à*

이다. 왜냐하면 1790년 4월 14일의 법령으로 종교기관의 재산을 지방행정부서에 넘겨주도록 했지만 공교육 기관들은 특별히 이 법령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²⁵⁾

하지만 곧이어 4월 20일의 법은 지방당국에게 종교기관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고, 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생시르 지역당국은 생시르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러나 결국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임무를 담당할 행정관계자들은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했고, 생시르의 대표자들 특히 교장인 마담 도르메낭(Mme.d'Ormenans), 총지배인(maîtresse générale)인 마담 드 크레시(Mme.de Crécy), 회계를 맡고 있는 마담 뒤 리공데(Mme. du Ligondès)는 매우 품위있고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학교와 시 당국자들 사이에 더 나은 이해가 형성될 수 있었다. 재산목록 조사는 8일간 진행되었는데 1788년 이후 왕실 재산이 생시르에 유입된 것이 전혀 없으며, 임대료 수입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생시르는 모아둔 자금으로 생활을 해왔고, 사실상 이 자금도 고갈된 상태였던 것이다.²⁶⁾

하지만 교육기관들에 부여된 유예기간은 짧았다. 1790년 10월 14일의

Saint-Cyr pour L'Éducation des demoiselles nobles du royaume, Paris: Typographie Lacrampe et Cie, 1845, p. 211. 노아이유 공작(Duc de Noailles: 1802-1885)은, 땡트농 부인의 오빠 샤를의 딸인 프랑수아즈 샤를로트 도비네(Françoise Charlotte d'Aubigné)와 1698년 결혼한 노아이유 공작 아드리앵 모리스(Adrien Maurice)의 증손자이다. 프랑수아즈 샤를로트 도비네는 땡트농 부인의 조카딸로서 그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 1843년 노아이유 공작은 생루이 여교사회에 헌정하는 약 200페이지 분량의 책 한 권을 출판했는데, 그것은 대중적으로 유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녀든 소녀든 간에 1793년의 마지막까지 생시르의 구성원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25) Barnard, H. C., *Madame de Maintenon and Saint-Cyr*, p. 119.

26) *Ibid.*, p. 120.

법령에 의해 교육기관들의 재산은 매각하도록 결정되었고 1791년 4월 초 생시르에도 이 법이 적용되었다. 생시르의 교사들은 제헌의회에 보고서를 보내 수도원의 서원과 수도회는 이미 1790년 2월 13일의 법령에 의해 폐지되었기 때문에, 생시르가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단 소속의 수도원으로 변형된 1692년의 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 더 이상 종교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생시르가 공교육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재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헌의회는 학교로서의 생시르는 유지시키지만 그 재산은 국유화되고 매각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²⁷⁾ 이것은 생시르 소유의 농장들과 토지들이 몰수되며, 생시르를 떠나는 소녀들에게 더 이상 지참금은 주어지지 않겠지만, 학교는 계속 근근히 유지될 것이고, 이전과 같이 학교 업무는 계속될 것임을 의미했다.

이처럼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생시르의 존립은 매일 조금씩 더 위협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1790년 12월 26일의 법령은 모든 성직자들에게 새로운 ‘성직자 민사기본법’을 준수하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다. 생시르의 본당 신부(curé)는 맹세를 하는 데 동의했지만 생라자르 수도회의 고해신부들- 프랑스 주교들과 많은 성직자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또 맹세를 하는 것이 대중교육을 하고 있는 수녀들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⁸⁾ 이러한 상황은 수녀원을 향한 지방당국의 적대감을 되살아나게 했다. 생라자르 수도회는 애국심이 결여되었다는 비난을 받았고, 수녀들은 ‘타락한 여성들’(femmes séduites), ‘헌법의 공공연한 적들’(ennemies déclarées de la constitution)로 공표되었다. 격앙된 대중들이 수녀원을 공격했다. 수녀들과 그 제자들은 기도과 눈물속에서 바리케이드를 친 문 뒤로 몸을 숨겼고, 생라자르 수도회 신부들은 뒤뜰을 통해 몸을 숨겨 베르

27) 생시르의 재산을 매입한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화학자 라부아지에(Lavoisier)와 미래의 황후 조세핀(Joséphine)인 마담 드 보아르네(Mme. de Beauharnais)도 있었다.

28) Barnard, H. C., *Madame de Maintenon and Saint-Cyr*, p. 122.

사유를 향해 탈출했다. 그러자 생시르의 본당 신부와 지방당국은 군(district)²⁹⁾ 의회에 청원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생시르가 ‘성직자 민사기본법’에 선서한 신부들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 하며 ‘부인들’[여교사들]도 규정된 맹세를 해야만 한다는 내용이었다.

청원서는 1791년 6월 말에 도착했는데, 국왕 일가가 프랑스를 탈출하려던 시도[바렌 탈주사건]가 실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왕실과 생시르의 긴밀한 연관성을 봤을 때, 국왕 일가의 탈주 음모에 생시르의 수녀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의심되었다. 또한 마리 앙투아네트가 떠나기 전에 다이아몬드와 여러 귀중품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생시르에 넘겨주었다는 루머가 퍼져 나갔다. 떠들썩한 대중들을 잠재우기 위해 지역당국은 수녀들이 맹세를 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생시르는 이번에는 자신들이 사교육기관이지 공교육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법령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대응에 맞서 지역당국은 생루이 여교사회에게 맹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인지를 3일 내로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다행히 당국에 힘 있는 ‘친구들’을 두고 있었던 수녀들의 맹세는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이 찾아왔다. 1792년 8월 7일의 법령으로 종교기관들이 해체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날인 1792년 8월 8일 루이 16세는 몽테스팡 양(Mlle.de Montespin)을 위한 생시르의 마지막 입학 허가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이를 후[1792년 8월 10일] 프랑스 왕정은 붕괴되었다. 툴리 궁전은 약탈당했고, 왕과 그의 일가는 탕플(Temple)에 유폐되었다.

29) 제헌의회는 혼란스러운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프랑스를 83개의 도(departments)로 구획하고 (1789년 12월 22일 법령), 도는 군, 면, 코뮌으로 나누었다. 도, 군, 코뮌은 선거로 선출되는 의회와 행정부를 보유했고 그에 따라 지방분권체제가 구체제의 중앙집권을 대체했다. 특히 1791년 도는 군(district)으로 분할되었다. Tilley, Arthur, ed., *Modern France: a Companion to French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2, p. 340.

1792년 8월 16일 입법회의의 법령은 생시르의 여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생시르 지역의 징세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데 드는 경비를 거리에 비례하여 여학생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생시르는 여전히 유력자들을 친구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언쟁은 계속되었고 혁명의 급진화 속에 약 7개월 동안 생시르의 고통은 지속되었다. 이 기간에 생시르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계속 높아졌다. 끊임없이 생시르를 방문한 관리들은 생시르의 기록물을 치워버리거나 분산시키고 파괴하기까지 했다. 많은 부모들과 친척들은 생시르를 떠나게 된 소녀들의 운명에 대해 불안해 했다.

이 시기 학교를 떠난 학생들 중에는 나폴레옹의 동생인 마리안 보나파르트(Marianne Buonaparte)도 있다. 1777년에 태어난 그녀는 7살인 1784년에 생시르에 입학했다. 당시 포병장교였던 나폴레옹은 베르사유 지방당국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자신을 3인칭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신사여러분,

마리안 보나파르트 양의 오빠이자 보호자인 보나파르트는 영광스럽게도 8월 7일의 법령과 같은 달 16일자 법령 중 특히 생루이 학교[생시르]를 폐지하는 추가조항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사업과 공공 업무를 위해서 지체 없이 파리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법의 적용으로 여동생을 가족에게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는 8월 16일 법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또 지역 재무관리가 생시르에서 그녀의 집이 있는 코르시카의 아작시오(Ajaccio)까지 1리그당[리그=거리단위] 20솔을 그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반드시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1792년 9월 1일 여러분을 존경하는 보나파르트³⁰⁾

나폴레옹의 편지 덕분에 승인이 떨어졌다. 보나파르트 양은 오빠의 보호하에 생시르를 떠나는 것이 허용되었고, 사복을 입는 것도 허용되었다. 그녀에게 지급된 경비는 352리브르였다. 13년이 지난 후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로서 생시르의 터전에 들어선 남자 학교인 프리타네 프랑세(Prytanée français)를 방문했는데, 이 학교는 이후 생시르로 널리 알려진 특수 군사 학교로 발전했다.

보나파르트 양을 포함해 약 25명의 소녀들이 8월 16일의 법령에 따라 생시르를 떠났다. 수녀들과 보조수녀들(converses), 그리고 생시르의 가사 담당 직원들은 용감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정문제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교육기관들의 재산을 매각하도록 결정한 1790년 10월 14일의 법령이 1791년 4월 초부터 생시르에도 적용되었는데 사실상 생시르의 재정상태는 그 소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매각하기 시작함에 따라 1791년 2월부터 최악이 되고 있었다.³¹⁾ 생시르는 주로 대외자문위원회로부터 조달한 대출금으로 생활했고, 군 위원회도 생시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3만 리브르를 보조했다.

그러나 도 위원회는 생시르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도 위원회는 생시르와 관련해 불편한 문제들, 예컨대 “왜 8월 16일의 법령이 생시르에는 적용되지 않았는지? ‘부인들’[생시르의 여교사들]은 어떤 지위에 있으며, 다른 교사들에게 적용되었던 법령들이 왜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지”³²⁾ 등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내무부장관에게 상신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돌아온 회신은 생시르 학생들의 리스트를 작성하

30) Noailles, Duc de, *Histoire de la Maison royale de Saint-Louis établie à Saint-Cyr pour L'Éducation des demoiselles nobles du royaume*, pp. 182-183.

31) Milhet, Jean-Joseph, “Saint-Cyr, haut lieu voué à l'éducation”, p. 102.

32) Barnard, H. C., *Madame de Maintenon and Saint-Cyr*, p. 125.

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비록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생시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고통의 한복판에 있던 1792년 11월 15일 생루이 여교사회의 일원이었던 카트린 드 콕본 드 빌뇌브(Catherine de Cockborne de Ville-neuve)가 사망했다. 그녀는 생시르에 묻힌 마지막 인물이었다. 섬망상태에서 그녀는 연극 〈에스테르〉 중 이스라엘인들이 고국의 불운을 애통해 하는 후렴구를 다시 한번 불렀다.

가련한 시온아, 너의 영광 어찌 하였느냐?

온 세계가 너의 빛을 찬미하였거늘.

이젠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아

이제 고작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저 위대한 영광의 슬픈 기억뿐³³⁾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녀가 무덤에 누여질 때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 했으며, 하나가 되어 울었고, 하나가 되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매와 함께 그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³⁴⁾

그러나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점점 급진화되어가고 있던 혁명의 현실은 냉혹했다. 생시르에는 매주 교실에서 맵트농 부인의 글 한 구절을 읽는 관행이 있었다. 1793년 초 트랑블레에 부인(Mme.de la Tremblaye)은 다음과 같은 글귀를 우연히 발견해 읽었다.

생시르는 위대한 왕에 의해 건립되었다. 생시르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 어

33) *Esther*, Act I, Sc.2: 장 라신, 『라신 희곡선』, 정병희 외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385쪽.

34) Barnard, H. C., *Madame de Maintenon and Saint-Cyr*, p. 125.

편 것도 잊혀지지 않았다. 아직 백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생시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³⁵⁾

낭독자가 책을 내려놓자, 청중들 모두 땀눈 부인의 예언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생시르는 6만 리브르가 넘는 빚이 있을 정도로 이미 큰 곤경에 처해 있었고 수녀들은 생시르를 떠나지 않고 자신들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자 했지만 온갖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1793년 2월 도 위원회는 생시르 지역 관리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생시르 여교사들에게 통지할 것을 지시했다. 그 내용은 생시르의 여교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그 조치란 3월 15일까지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늦어도 4월 1일까지 여교사들도 생시르를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³⁶⁾ 예상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시르의 수녀들은 대경실색했다. 생시르는 지사인³⁷⁾ 아스트뤽(Astruc)을 통해 이러한 명령에 대해 마지막 호소를 했다.

이 기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국민공회가 생각치 않으신다 하더라도, 학생들과 여교사들의 운명에 대해 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공화국 전 지역의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들입니다. 고백컨대 일부 부모가 다른 나라로 떠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해외 전제정에 대항하여 싸우는 공화국의 전선에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후자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국민공

35) Noailles, Duc de, *Histoire de la Maison royale de Saint-Louis établie à Saint-Cyr pour l'éducation des demoiselles nobles du royaume*, pp. 180-181.

36) Archives de la Préfecture de Versailles. Barnard, H. C., *Madame de Maintenon and Saint-Cyr*, p. 126 재인용.

37) 생시르의 지사는 세속 행정을 담당했으며 대외자문위원회의 일원이었다.

회의 정의로움을, 불쌍한 전자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국민공회의 인간애를 부탁드립니다. 여교사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곳에 있는 7-8년 동안 자신들의 업무와 학생들의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열의를 가지고 순수한 덕성으로 수행해 온 고된 업무와 공공사업이 국민공회가 그들에게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처분을 결정지를 것입니다.³⁸⁾

그러나 이러한 호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당시 공교육위원회를 대표하는 롬(Romme)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민공회는 사실상 생시르의 폐교령인 1793년 3월 16일자 법령을 발표했다.³⁹⁾ 그것은 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생시르는 폐교되며 이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철거된다. (2) 수녀들과 보조수녀들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그 액수는 개인별로 결정될 것이다. (3) 그들의 개인적인 소지품들은 그들이 간청한 대로 스스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한다. (4) 학생들은 1리그당 40솔씩 집에 돌아갈 경비를 받게 될 것이다. (5) 학생들이 자신들의 옷과 소지품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용한다. (6) 생시르 지역당국은 수녀원의 가사 담당 직원들이 떠날 때 재량껏 돈을 지급하는데, 그들의 업무 특성과 근무 기간에 따라 액수를 정한다. (7) 생시르가 이미 지급한 연금과 2,100리브르에 달하는 돈은 재무부의 책임하에 계속 된다. (8) 생시르에 대한 회계는 지사가 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⁴⁰⁾

3월 16일의 법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 보올로(Boyelleau)가 군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4월 17일에

38) Archives de la Préfecture de Versailles. Barnard, H. C., *Madame de Maintenon and Saint-Cyr*, p. 126 재인용.

39) Milhet, Jean-Joseph, *Saint-cyr, trois siècles d'histoire du poète Jean Racine au sculpteur César*, p. 160.

40) Barnard, H. C., *Madame de Maintenon and Saint-Cyr*, pp. 126-127.

생시르에 도착해서 생시르 구성원들의 리스트를 확인했다. 그들 중 한 명인 마리 프랑수아즈-앙리에트 에롤 드 쿠르셀(Marie-Françoise-Henriette l'Héroulle de Courcelles)은 당시 80세였는데, 그녀는 맵트농 부인이 죽기 직전에 생시르에 들어가 1733년에 교사가 되었었다. 각 수녀들은 자신들이 은퇴할 장소를 지정했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명단이 불러졌다. 당시 학교에는 110명 만이 남아 있었는데, 1792년 9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들 소녀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집으로 보내졌고, 4월 27일 마지막 여학생이 생시르에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나서 여교사들이 떠나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베르사유로, 일부는 지방으로 갔다. 그들은 대부분 5-6개 그룹으로 나뉘어 함께 살았고, 궁색하지 않게 연금을 받았다. 비록 그들은 떨어져 살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했고 교장을 임명했다.⁴¹⁾ 1794년 수녀들은 마담 도르메낭을 교장으로 재선출했는데, 그녀는 생시르의 최후의 고통과 마주했다. 1796년 그녀가 죽은 후 마르그리트 델페이루 드 뫼라(Marguerite d'Elpeyrou de Murat)가 교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녀는 1824년 사망할 때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같은 그 직책을 유지했다. 당시 교장으로 새로 선출될 만한 남아있는 수녀는 거의 없었다. 1842년 생루이 여교사회에는 단 두 명만이 남아있었다. 노아유 공작(Duc de Noailles)은 자신이 쓴 『생루이 왕립 학교의 역사』(*Histoire de la Maison Royale de Saint-Louis*)를 그들과 생존해 있는 학생들에게 바쳤다.

생시르의 이 마지막 올림이 이 성스러운 안식처에 머물렀던 여러분들의 젊은 날들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 성스러운 안식처를 건립했던 맵트

41) Noailles, Duc de, *Histoire de la Maison royale de Saint-Louis établie à Saint-Cyr pour L'Éducation des demoiselles nobles du royaume*, p. 214.

농 부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존경을 함께 나누는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을 위로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⁴²⁾

이렇게 학생들과 수녀, 평신도 직원들은 생시르를 떠났다. 그리고 옛 생루이 왕립학교의 관리 업무는 레수르(Lessour)라는 시민에게 맡겨졌다. 아울러 1793년 폐교령이 발표됨에 따라 생시르의 가구와 설비들이 그 가치나 종류에 관계없이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남김 없이 매각될 준비를 했다. 생시르 예배당의 조각상은 도끼와 망치로 부숴졌고 은으로 된 장식품들과 종, 철로 된 그릴들은 경매에 부쳐졌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가 생시르의 소유물들을 경매를 통해 매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마지막 매각이 이루어졌던 1793년 9월 22일 저녁, 생시르에 남은 것은 성벽뿐이었다.⁴³⁾

IV. 맺음말

루이 14세 시대 ‘가난한’ 귀족가문 소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던 생시르는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 정치와 교육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예컨대 생시르의 교육목표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 하나는 교육 커리큘럼이기도 했던 지리지(cahiers de géographie)인데 생시르는 여학생들에게 지리지를 통해 당시 정치, 경제의 기초 및 지리를 이해하도록 했고 이는 생시르의 지리지가 절대왕정기 중상주의의 논리로서 일종의 부국강병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시

42) *Ibid.*, Preface, pp. vi-vii.

43) Milhet, Jean-Joseph, *Saint-cyr, trois siècles d'histoire du poète Jean Racine au sculpteur César*, p. 165.

키는 논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789년 혁명 이후 혁명정부에 의해 생시르가 폐교되는 과정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더욱 밀도있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생시르는 일부 관심있는 특정 지역 귀족가문 소녀들을 교양있는 여성으로 교육하기 위한 학교가 아니라 장차 아이들에게는 ‘최초의 교사’이고 남편들에게는 ‘어진 아내’가 될 소녀들을 통해 절대왕정의 정치적 목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89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생시르는 8월 4일 밤 제헌의회의 봉건제 폐지 선언을 신호탄으로 학교 수입의 몰수를 포함해 점차 그 권리가 축소되다가 결국 1793년 폐교되었다. 이는 생시르가 혁명정부에 의해 철저히 청산되어야 할 구체제의 유산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생시르의 기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즉, 1793년 폐교령에 따라 생시르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이후 생시르가 위치했던 코핀은 발-리브르(Val-Libre)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그리고 버려졌던 생시르의 건물은 1794년에 군병원이 되었다가 1800년에 프리타네 프랑세가 되었다. ‘프리타네 프랑세’라는 명칭은 공화국 체제하에 파리의 콜레주 루이 르 그랑(Louis-le-Grand)을 대체한 남자 기숙학교에 붙여진 것이었다. “조국의 학생들”(élèves de la patrie)이라 불리웠던 학생들은 자신들의 장점과 필요에 따라서 선발되었고 장학금도 주어졌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이 기관의 혜택은 충분치 않았고 더욱이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역에 4개의 프리타네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4개는 파리 예수회 콜레주의 오래된 건물안, 퐁텐블로, 생제르맹, 생시르였다. 이후 퐁텐블로에 프리타네를 대신해서 전문군사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함에 따라 퐁텐블로의 프리타네는 콩피에뉴(Compiègne)로 이전해 문을 열었고 5번째 프리타네는 브뤼셀에 문을 열었다. 이것은 모두 기숙학교들이었다. 이 기숙학교들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들 및 일반인들의

아이들이 무료로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입학한 학생들 중에는 수업료를 내는 학생들도 많았다. 프리타네에서는 12살까지의 학생들이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그 이후로는 특별 교육과정을 교육받았는데, 군사, 법률, 의학, 교육, 토목공학 등 모두 국가와 관련된 분야였다. 콩피에뉴 프리타네에는 해군을 준비하는 특별과정도 있었다. 그리고 1802년 푸르크루아(Fourcroy)의 교육계획안에 따라 과학과 산업에 집중된 중앙학교(écoles centrales)가 앙리앙 레짐의 콜레주에 좀 더 가까운 리세(lycées)로 대체되자 파리와 생제르맹의 프리타네는 군대나 국가에 봉사할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특별한 편견 없이 리세가 되었고 콩피에뉴의 프리타네는 예술 및 공예학교(une école d'arts et métiers)로 바뀌었다.

그러나 생시르의 프리타네만은 프리타네 프랑세로 그 이름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곳에는 50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들 중 절반은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로 전사한 군인들의 아들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수업료를 내는 학생들이었다. 이 기관은 후에 군장교로서 특별훈련과정을 이수하게 될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예비학교가 되었다. 1808년 또다른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프리타네 프랑세가 유명한 예수회 콜레주의 건물에 있는 라플레슈(La Flèche)로 이전한 것이다. 이 프리타네는 여전히 존재하며 원래의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군사학교로서 군복무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장교의 아들들이 이곳에서 무상으로 교육받았다. 소년들은 9살에 입학해 18-19세까지 학교를 다녔다. 따라서 근대의 'Prytanée militaire de la Flèche'와 이전의 'Maison de Saint-Louis'사이에는 신기하게도 유사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기관 모두 군 장교 자녀들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리타네가 생시르의 건물을 떠나면서, 그때까지 퐁텐블로에 있었던 전문군사학교가 옛 생루이 왕립학교 자리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가난한' 귀족가문 딸들을 위해 루이 14세와 맵트농 부인이 세웠던 학교는 현재 프랑스의 '샌드허스트(sandhurst: 영국 육군사관학교 소재지)'

라고 할 수 있는 특수군사학교(école spéciale militaire)가 된 것이다. 그 차이점은 분명하다. 오늘날 그 건물에서는 이전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경건함, 온화함, 순수함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시르는 그 역사를 통해 영원한 기억의 장소에 남겨졌다.⁴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시기인 1712년 7월 24일 드냉(Denain)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편지에서 땡트농 부인은 “생시르 만세! 프랑스가 있는 한 생시르여 영원하라! 세상이 있는 한 프랑스여 영원하라!”⁴⁵⁾ 고 적었다. ‘새로운 생시르’는 그 감정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3.11.24. 투고 / 2023.12.12. 심사완료 / 2023.12.12. 게재확정)

44) Barnard, H. C., *Madame de Maintenon and Saint-Cyr*, p. 131.

45) Lavallée, Théophile, éd., *Lettres historiques et édifiantes adressées aux dames de Saint-Louis*, II, Paris: Charpentier, Libraire-Éditeur, 1856, p. 377.

[Abstract]

The Abolition of Saint-Cyr in 1793: Liquidation of the Ancient Regime

Kang, Mi-Sook

When the Revolution of 1789 broke out, Saint-Cyr, which had been operating under the auspices of the absolute monarchy to educate aristocratic women, was far from the revolution. Therefore, the declaration of the constituent assembly on the night of August 4 which pre-announced the abolishment of feudalism signaled the gradual curtailment of its rights, including the confiscation of the school's revenues, and it was finally closed in 1793. This paper examines the course by which the revolutionary government closed the Saint-Cyr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from the Constituent Assembly to the National Convention. The progress of the abolition of Saint-Cyr was studied by closely analyzing the educational decrees issued by the revolutionary government. Therefore, this paper has tried to demonstrate that Saint-Cyr was a vestige of the ancient regime which was to be liquidated by the revolutionary government and in that sense,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rule of Louis XIV, the symbol of absolute monarchy.

□ Keyword

Saint-Cyr, Louis XIV, French Revolution, Ancient Regime, Absolute Monarchy, Female education

[참고문헌]

1. 1차 문헌

- 장 라신, 『라신 희곡선』, 정병희 외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 Eloge historique de Mme. Elisabeth de France, suivi de plusieurs Lettres de cette Princesse par Antoine-François-Claude Ferrand*, Paris: impr. de A. Le Clère, 1861.
- Eloge de Mme. de Maintenon: discours par M. François, prêtre de la Mission*, Paris, 1787.
- Lavallée, Théophile, éd., *Lettres historiques et édifiantes adressées aux dames de Saint-Louis*, II, Paris: Charpentier, Libraire-Éditeur, 1856.
- Noailles, Duc de, *Histoire de la Maison royale de Saint-Louis établie à Saint-Cyr pour L'Éducation des demoiselles nobles du royaume*, Paris: Typographie Lacrampe et Cie, 1845.

2. 연구문헌

- 강미숙, 「그리스 비극에서 성서극으로: 17세기 후반 생시르 기숙학교 연극의 변화」, 『서양사학연구』 40, 2016.
- 강미숙, 「루이 14시대 여성교육: 생시르 기숙학교의 사례」, 『역사와 문화』 16, 2008.
- 강미숙, 「맹트농 부인의 생시르 기숙학교와 17세기 프랑스의 여성교육」,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강미숙, 「생-시르(Saint-Cyr)기숙학교 설립자, 맹트농 부인(Madame de Maintenon)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서양사학연구』 13, 2005.
- 강미숙, 「페들롱과 귀족제적 질서의 옹호 - 『소녀교육론』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21, 2009.

- 김응중, 「절대왕정의 명암」, 『서양의 역사에는 초야권이 없다』, 푸른 역사, 2005.
- 송기형, 「프랑스혁명기 공공교육위원회의 교육안」, 한국프랑스사학회, 『교육과 정치로 본 프랑스사』, 서해문집, 2014.
- 이영림, 『루이 14세는 없다』, 푸른역사, 2010.
- 정동준, 『프랑스 대혁명기의 공교육 계획』, 국학자료원, 2003.
- Barnard, H. C., *Madame de Maintenon and Saint-Cyr*, London: A. & C. Black, LTD, 1934.
- Baudrillart, Alfred, “Mme. de Maintenon, Son Role Politique Pendant Les Dernieres Années Du Règne de Louis XIV, 1700-1715”, *Revue des Questions Historiques*, 47, 1890.
- Cruttwell, Maud, *Madame de Maintenon*, New York: Dutton, 1930.
- Daniélou, Madeleine, *Madame de Maintenon, éducatrice*, Paris: Bloud & Gay, 1946.
- Duvergé, Christine, “Entre theorie et pratique: Madame de Maintenon et la cité des Demoiselles de Saint-Cyr(1685-1719)”, Ph.D., Univ. of Arizona, 2003.
- James, Nancy C., *Pure Love of Madame Guy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7.
- James, Nancy C., *The Soul, Lover of Go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14.
- James, Nancy C. and Voros, Sharon D., *Bastille Witnes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11.
- John J. Conley, S. J., ed. & trans., *Dialogues and Addresses: The Other Voice in Early Modern Europe by Madame de Mainten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Le Nabour, Eric, *La Marquise de Maintenon. l'épouse secrète de Louis XIV*, Pygmalion, 2007.
- Mallet-Joris, Françoise, *Jeanne Guyon*, Paris: Flammarion, 1978.
- Milhet, Jean-Joseph, "Saint-Cyr, haut lieu voué à l'éducation", Chantal Grell et Arnaud Ramière de Fortanier, éd., *L'Éducation des jeunes filles nobles en Europe XVIIe-XVIIIe siècles*, Paris: Presses de l'Université Paris-Sorbonne, 2004.
- Milhet, Jean-Joseph, *Saint-cyr, trois siècles d'histoire du poète Jean Racine au sculpteur César*, Paris: Editions Christian, 1998.
- Mills, Bonnie C., "Le role de Madame de Maintenon dans la revocation de l'Edit de Nantes", M.A., Millersville State College, 1970.
- Mongenot, Christine et Plagnol-Diéval, Marie-Emmanuelle, dir., *Madame de Maintenon Une femme de Lettr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12.
- Pascal, César, *La révocation de l'édit de Nantes et Mme de Maintenon: sa vie, son caractère, son influence*, Paris: E. Dentu, 1885.
- Roche, Daniel, *Les Républicains des lettres: Gens de culture et lumières au XVIIIe siècle*, Paris: Fayard, 1988.
- Rosset, Alfred, *Madame de Maintenon et la Revocation de l'Edit de Nantes: essai historique*, Audincourt: Impr. C. Jacot, 1897.
- Sturgill, Claude, *Marshal Villars and the War of the Spanish Succession*, Kentucky: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65.
- Taylor, Karen L., "Cher espoir de la nation sainte: the maison royale de Saint Louis at Saint-Cyr", Ph. D., Sidwell Friends School/Georgetown University, 2000.
- Tilley, Arthur, ed., *Modern France: a Companion to French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2.